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가와구치 히로코

●8월 6일 이전의 상황

당시 우리 집은 가미텐마초에 있었으며 어머니, 오빠, 언니, 나 모두 네 식구였습니다. 아버지인 오모야 도시오는 1938년에 중국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전사했을 때 나는 어렸으므로 아버지의 얼굴은 사진으로 밖에 모릅니다. 집에 걸려 있던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아버지한테 신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사진에서 못 나오시잖아요」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시즈코는 혼자서 우리들을 기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열이 대단하셔서 전시중이었지만 습자나 발레 등을 배우게 해 주었고 오빠가 중학교 입학시험을 봤을 때에는 매일 아침 백일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배달할 때는 오빠나 언니도 어머니를 도왔고, 나도 어렸지만 식구들의 뒤를 따라 걸어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시다만, 같은 마을 내에는 삼촌 일가가, 가까운 히로세 모토마치에는 할아버지 일가가 살고 계셨고 또 당시는 근처가 모두 친척같이 지내고 있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돌보아 주고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그 즈음 많은 국민학교에서는 집단으로 시골에 아이들을 피난시키거나 연고지로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덴마국민학교의 3학년이었던 나도 같은 학교의 6학년이었던 스미에언니와 함께 유키초에 있는 절로 집단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매주 어머니와 오빠 도시유키가 고구마 등을 가지고 면회하러 와 주었습니다만, 어린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 슬하를 떠나 있는 생활은 매우 피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더라도 부모와 자식 함께 죽자」라고 하므로 나도 「이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하여 가미텐마초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그대로 피난 갔던 곳에 남아있었다면 어머니나 오빠도 면회하러 왔었을 테니까 모두 목숨을 건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6일의 상황

8월 6일, 나는 학교가 쉬는 날이었으므로 친구와 근처에 놀러 나갔었습니다.

상공을 B29가 비행기 구름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당시, 폭탄이 떨어지면, 눈과 귀를 막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 섬광은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때 내가 있었던 장소는 운 좋게도 집 처마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벽에 가려져 상처도 입지 않았으며 뜨거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도 조금 머리를 다쳤을 뿐이어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집 틈 사이를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보니 피폭하여 다친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쌀배급을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피폭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집 안에서 구급주머니만을 꺼내 나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변을 보니 가옥이 무너지고 다리 난간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고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새까맣게 타서 숯검둥이가 된 사람이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라고 도움을 청해 왔었지만 그 때,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의 이름만이라도 물어 봐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고생 끝에 고이국민학교에 도착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맨발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더미 속을 다치지도 않고 용케도 맨발로 도망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교실도 복도도 부상자로 가득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의 상처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손, 발, 등에 큰 화상을 입었고 얼굴에도 조금 화상을 입었으며 그리고 머리가 크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라 해도 약만 조금 발라주었을 뿐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약도 제대로 발라 주었는지 안 발랐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서 지정되어 있던 오가와치마치의 피난장소로 향했습니다. 피난장소에 도착하니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져 가까이 떨어져 있던 양철판을 가져 와 비를 피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잠시 후에 오빠 도시유키가 왔습니다.

당시 오빠는 마쓰모토공업학교 2학년생으로 우지나 앞바다에 있는 가나와도의 공장에 학도동원이 되어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동원처로 향하던 중 미유키바시다리 부근에서 피폭했습니다만, 우리들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동원처로는 가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전철의 본사가 있었던 부근은 양측이 불타고 있어서 지나갈 수 없었으므로 수도중학교 쪽으로 가서 모토야스강과 오타가와강을 배로 건너 후 다리를 건너 점심 경에 겨우 간온마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돌아

오는 도중에 유치원이 부서져서 건물에 깔린 사람이 도움을 청해 왔으나 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갈 길을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집 바로 옆까지 불길이 다가오고 있어서 곧바로 방화용 양동으로 물을 길어 불길을 잡았다고 훗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우리들을 찾으러 오가와치마치로 와 무사히 식구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6 일날 아침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니를 야마나카고등여학교에 진학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학교를 결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아침도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언니를 학교에 보냈습니다만 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일 이후의 상황

다음날 오빠는 돌아오지 않는 언니를 찾으러 덴마국민학교로 갔습니다. 오빠는 당일 언니가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 부근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만 학교 건물은 폭삭 주저앉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버려 불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오빠 나 셋은 2 일인가 3 일 동안 오가와치마치의 피난처에 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언니를 걱정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의 어머니는 계속 자리에 누운 채였으며 상처치료라고는 고이 국민학교에서 약을 바른 것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우리 집은 타지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의 이부자리를 꺼내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작은 어머니 오모야 스에코는 「어떻게 된거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불을 내 주면서 왜 너희 어머니한테 이불을 안 덮혀 드리니?」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아직 공업학교 2 학년, 나도 국민학교 3 학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초등학교생 나이였습니다. 아이들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의 간병과 우리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작은어머니네는 작은아버지가 야마구치에 있는 부대에 소집되어 가 있었습니다만, 아내와 딸 노부에가 히로시마에 있다는 이유로 2 일 후에는 히로시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아이들만으로 도저히 우리는 살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입은 화상은 빨리 나아서 기뻐하고 있었습시다만, 등에 입은 화상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시다. 등의 화상은 딱지가 져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껍질이 문드러지고는 하였습시다. 껍질 속에는 구더기가 가득했습시다. 모르는 사이에 등에 구더기가 생겨 뻑뻑하게 붙어 있어 도저히 땄 수도 없었습시다. 어머니는 모기장을 친 곳에서 자고 나와 오빠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습시다만, 나는 구더기가 들끓어 나는 냄새에만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다쳤어도 「아프다」 든가 「가렵다」 든가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도 마시고 싶어하지 않았습시다. 단지, 「복숭아가 먹고 싶어 복숭아가 먹고 싶어」 라고 했으므로 이구치까지 작은어머니가 복숭아를 사러 가 주었습시다. 지금 생각하면 역시 목이 말랐었던 것이겠지요.

9 월 4 일 아침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습시다. 작은어머니께서 「아이고 애들아 너희 어머니 목숨이 이미 끊어져 있지 않니」 라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시다. 그때까지 나도 오빠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시다.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깨져서 크게 다쳤는데도 용케 한 달 동안이나 살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부상자들을 트럭에 태워 교외로 피난시켰을 때도 어머니는 언니의 소식을 알 때까지는 절대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시다. 어머니처럼 많이 다친 사람들 중 교외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진 사람도 있었습시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언니가 걱정이 되어서 언니를 만나고 싶은 일심으로 살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그날 가족들이 고세이칸 터에 가서 화장하였습시다. 그러나 슬프다는 감정도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시다. 이미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 어머니의 유해는 좀처럼 잘 타지 않았습시다.

시내는,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전체가 불탄 황야가 되어버려 우리 집에서 히로시마역이나 니노시마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습시다. 곳곳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강의 시체는 군인들이 끌어올려서 화장하고 있었습시다. 1 개월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된 시체도 있었지만 우리는 태연하게 거기를 왔다갔다하고 있었습시다. 또 당시는 원폭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었으므로 남의 집 밭에서 뽑은 고구마나 땅속에 묻어 두었던 쌀 등 피폭한 먹을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었습시다.

●피폭후의 생활

우리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친척을 의지해 미도리이촌으로

가 친척집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먼저 가 계셨습니다.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할아버지, 오모에 도메키치와 할머니 마쓰노는 자택의 방에 있어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미도리이촌에 도착했을 때는 건강했던 할아버지도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어머니가 돌아가신 5 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히로세 모토마치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삼촌 쇼소도 자택 현관에 있었다고 합니다만,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미도리이촌에서는 이제까지의 생활과 달라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년 정도 미도리이촌 학교에 다닌 후, 히로세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집을 지을 땅을 마련하여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부부가 양부모가 되어 오빠와 나를 친자식처럼 길러 주셨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쓸쓸하다든가 그런 감정은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부모가 그리워졌습니다. 자매처럼 자라던 사촌들이 초등학교부터 가정교사가 와서 공부를 시켜 주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조금 쓸쓸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가족과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구 제조를 하고 있었으므로 거기에서 경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병에 대해서

옛날에는 피폭자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많았으며 특히 여성은 결혼할 때 피폭자인 것을 숨기고 피폭자 건강수첩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도 수첩교부가 시작된 후에도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청했습니다. 평소부터 결혼은 작은아버지 부부가 결정한 상대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만 다행히 결혼상대는 내가 피폭자라는 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태어나게 될 아기가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갑상선 암입니다. 우리 오빠도 사촌 자매들도 암에 걸렸고 결혼해서 태어난 딸은 청신경종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역시 원폭이 원인이 되어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생각

아이들에게는 자주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또, 함께 평화기념 자료관에도 가고 원폭이 떨어졌을 때의 상황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하루의 생활에 쫓겨서 식구들 성묘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만 지금은 자주 가서 모두와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오고는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더 효도해 드릴 수 있었는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나이 또래의 분을 보면 어머니에게 해 드릴 수 없었던 만큼 보살펴 드리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음에도 지금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